

한국가금사양표준 개정



황보 중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최근 가축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모든 축종을 불문하고, 가장 어려운 점은 급격한 사료비 상승에 의한 생산비 증가와 환경오염원으로서의 가축 배설물 처리라고 할 수 있다.

가축사양표준은 가축의 생명유지와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별 요구량을 정해 놓은 것으로 사료의 경제적 이용과 생산능력의 향상 등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즉, 가축에게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사료급여를 통한 사료비 절감 등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 환경오염원으로서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40년대부터, 영국과 일본은 60년대부터 자국의 사양표준을 제정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가축개량, 사료가치 평가 등의 관련 기술 발전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가축사육 환경이 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여 2002년도에 한우, 젓소, 돼지 및 가금 등 4개 축종의 한국가금사양표준이 제정되어 2007년도에 1차 개정된 바 있는데, 최근 국내 연구결과와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4개 축종과 표준사료성분표를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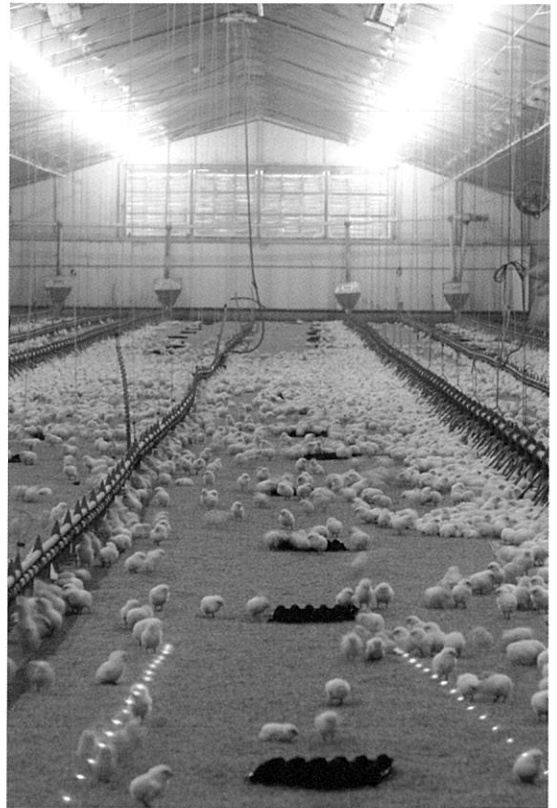
함한 5개 분야에 대하여 5년 만에 2차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가금류는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다른 축종에 비해 육종 개량 속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생산관리 시스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금류는 신체 내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축으로서 요구하는 영양소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정량을 공급해주는 영양소요구량 설정이 다른 어느 가축들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한국사양표준(가금)은 가금류별로 영양소요구량을 제시하고, 여기에 더하여 영양소요구량 설정의 기초적인 이론과 설정된 요구량을 활용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환경 및 사양관리 등의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설정된 영양소 요구량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축산과학원의 전신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1983년에 한국가축사료급여기준(닭)을 제정하고, 1994년에 수정·보완했던 것을 2002년도에 한국사양표준(가금)으로 새로이 개정판을 발간하고,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준육용계(토종닭) 부분과 가금의 사양관리 부분을 추가하여 2007년 한국사양표준(가금)이라는 1차 개정판이 축산과학원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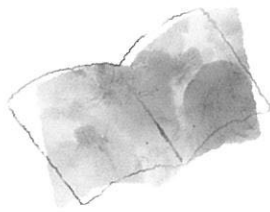
2007년도 개정판 출간 이후 곧바로 2차 개정판 발간을 위해 28명의 국내 가금전문가로



이루어진 가금사양표준 개정위원회가 조직되어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제2차 한국가금사양표준이 개정되어 출간하게 되었다.

본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총 8장과 부록에 가금류에 사용되는 주요 사료성분표로 이루어져 있다.

- 1장 가금영양과 영양소 요구량
- 2장 산란계 및 산란종계의 영양소 요구량
- 3장 육계의 영양소 요구량



한국사양표준(가금)은 가금류별로 영양소요구량을 제시하고, 여기에 더하여 영양소요구량 설정의 기초적인 이론과 설정된 요구량을 활용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환경 및 사양관리 등의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설정된 영양소 요구량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4장 육용종계의 영양소 요구량
 - 5장 오리과 메추리의 영양소 요구량
 - 6장 영양소 요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장 가금에서 영양소의 결핍과 과잉
 - 8장 가금의 사양관리
- 부록 : 가금류에 사용되는 주요 사료성분표

2012년 개정판 역시 기본 골격은 2007년 개정판을 유지했으나, 내용면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연구 발표된 학술논문은 물론, 산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산·학·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사양가나 사료업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모델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발간된 한국가금사양표준이 대학에서는 교육교재로, 산업계에서는 경제성과 영양 균형을 모두 갖춘 사료설계 기준으로, 양계농가에는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료급여 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양계농가나 사료업계는 물론 지도교육, 연구 및 국가정책 결정에 지침서가 되어서 국내 가금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